

순천시, 휴가철 바가지요금 점검... 안심 휴양지 조성

내달까지 음식값·숙박료 등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청소골·조비골·상사호 주변
원산지 표시·위생상태 확인

순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해 주요 피서지 물

가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되며 관광과, 식품위생과, 피서지 관할 소재지 읍면동이 협력해 진행된다.

관내 대표적인 피서지인 청소골, 조비골, 상사호 주변, 이사천 등을 중점 관리

한다.

이번 특별 대책은 주요 피서지의 음식값, 숙박료, 피서용품 등 여름 성수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인 점검 분야는 △바가지요금(요금 과다인상)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위생 상태 등이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물가 합동·점검반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피서지 개인서비스업 대상 간담회 실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피서지 개인서비스업 대상 간담회 실시,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업주들의 자율 참여와 피서지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휴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내일까지 순천시 소재 대학생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김준선)는 2024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 개최에 따른 사전 홍보의 일환으로 24일까지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의 SNS를 운영 중이고 세계유산 축전에 관심이 있는 순천시 소재 대학교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순천 세계유산축전 누리집(www.scwhf.com)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2024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은 세계유산 가치 확산 및 향유를 위해 순천 선암사, 순천갯벌, 오천그린광장을 무대로 10월 한 달간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8월부터 축전의 폐막까지 3개월간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 미션 수행 등의 활동을 하며 성공 개최와 전국적, 세계적 범업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서포터즈에게는 세계유산 교육 기회, 유니폼 제공, 월별 활동비와 우수 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순천에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남다른 창의력과 콘텐츠 활용으로 세계유산축전을 빛낼 대학생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가 운영중인 드론이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6일부터 벼 병해충 선제적 방제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를 시행중이다. 순천시 제공

‘순천을 그리다’... 순천 관광 일러스트 공모전

내달 19일부터 온라인 접수

순천시는 8월19일부터 30일까지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일러스트로 담아내는 순천 관광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순천 관광 일러스트 공모전은 순천의 매력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일러스트를 통해 전 국민에게 순천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순천을 그리다’ 주제에 맞춰 순천 여행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해 관광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더 나아가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상금은 대상 1명 150만원, 최우수상 2명 100만원, 우수상 4명 50만원, 장려상 5명 30만원 등 총 12팀 700만원이며 시상식은 2024년 푸드아트페스티벌 개막식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2024년 푸드아트페스티벌 아트존 전시 및 2025년 관광달력 디자인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지파일,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오는 8월30일까지 온라인 접수(enee0825@korea.kr)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러스트만의 무궁무진한 기술이 순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 문화유산 야행’ 시민 보조인력 모집

내달 5일까지 180명

순천시는 ‘2024 순천 문화유산 야행’ 행사에 참여할 시민 보조인력을 오는 8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순천 문화유산 야행’은 2016년부터 9년간 이어져 온 순천시의 대표적인 야간 문화 행사로, 지역 내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문화유산과 건축의 만남’을 주제로 8월15일부터 18일까지 향동과 매곡동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팔마비, 순천부 읍성 남문터 역사관, 순천향교, 옥천서원, 임정대, 매산동 선교마을, 매산관, 프레스틴 가족, 조지와츠 기념관 등을 거점으로 진행

된다.

모집 대상은 행사장 운영 지원, 버스 운영 지원, 무대 운영 지원, 교통 통제 지원 등으로 총 180명을 모집하며 순천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네이버 폼(https://naver.me/58N9xNrM)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보조 인력으로 선발된 인원은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취업정보구인·구직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 국가유산과(061-749-6811) 또는 순천문화유산야행 사무국(010-5515-12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무인 헬기·드론 활용...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순천농협 등과 협력 사업
인력난 해소·경영비 절감

순천시가 지난 6일부터 장마철 대비 발생하기 쉬운 벼 병해충의 선제적 방제를 위해 무인 헬기·드론을 활용한 공동 항공 방제를 실시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방제는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4313ha에 대한 방제를 추진한다.

시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벼 재

배농가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1억원 증액한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약제비와 항공방제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벼 병해충 공동 항공방제는 순천시에 거주하고 일반단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와 순천농협이 참여한 협력사업이다.

이번 1차 방제는 벼 병해충 피해 예방 차원의 선제적 방제를 목적으로 하며 8월

중에 실시하는 2차 방제는 장마 이후 발생하기 쉬운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지난해 많이 출현했던 흑명나방 등을 집중적으로 방제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항공방제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접수... 26일까지

순천시는 노후한 경유차량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26일까지 추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이며 순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다.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순천시는 상반기에 약 900대의 폐차를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약 30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등급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하반기에는 개인 또는 법인별 2대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26일까지 방문,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지원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www.suncheon.go.kr) 고시·공고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부24’ 앱 참여·방문 조사

순천시는 22일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정부 24 앱을 통해 8월26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10월15일까지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는 이

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 가구도 발굴할 계획이다.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 수정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